

광주 시기업 10곳 중 7곳 '연매출 5억 미만'

광주인자위, 인공지능 기업 인력·직무 조사

50억 이상 7% 불과... 절반 근로자 1~5명

제조업 클라우드 서비스 등 고도화 필요

인공지능 중심도시를 표방하는 광주지역 내 AI 관련 기업 10곳 중 7곳이 '연매출 5억원 미만'의 영세업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광주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지역 내 인공지능산업 관련 기업 71개사를 대상으로 전문인력 수요 증가에 대비해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AI 관련 기업 69.0%가 '연매출 5억원 미만'으로 조사됐다.

'5억~10억원 미만' 14.1%, '10억~30억원 미만' 9.9%로 나타났으며, 연매출 '50억 원 이상'인 기업은 7.0%에 불과했다. 근로자 수는 '1~5명'이 50.7%로 가장 많았고, '6~10명'이 32.4%로 뒤를 이었다. 근로자가 '50~100명' 기업은 7%에 그쳤다.

지난해 채용인원은 신입직 205명(평균 2.9명), 경력직 163명(평균 2.3명)이었고, 올해 채용예정인원은 신입직 145명(평균 2명), 경력직 118명(1.7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채용인원이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훈련 필요성에 대한 응답은 '재직자·신입직 둘 다 훈련 필요'가 71.8%로 가장 많았고, '재직자 대상의 훈련만 필요' 14.1%, '신입직 대상의 훈련만 필요' 8.5%로 나타났다. '둘 다 훈련 필요 없음'은 5.6%이다.

재직자에게 필요한 훈련직무는 '인공지능 플랫폼 구축'과 '인공지능 서비스 기획'이 각 25.4%로 가장 많았다. 신입직에게 필요한 직무는 '인공지능 모델링' 29.6%, '인공지능 서비스 기획' 25.4%, '인공지능 플랫폼 구축' 21.1% 등이다.

AI 기술 주 사용 분야는 '플랫폼 구축'이 28.2%로 가장 많았고, '서비스 구현' 23.9%, '서비스 기획' 16.9%, '리모델링' 14.0%, '시스템운영관리' 8.5%, '학습데이터 구축' 8.5% 순서를 기록했다.

AI 기술 사용 시 어려움은 'AI 인력 부족'이 31.0%로 가장 많았고, '초기 투자 비용 부담' 25.4%, '데이터 확보 및 품질 문제' 23.9%, 'AI 컴퓨팅 부족' 9.9%, '기술 개발 및 사업화의 불확실성' 8.4%, '국내 시장의 협소성' 1.4% 순이다.

광주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는 AI산

업의 미래와 관련한 훈련직무 방향성 논의 위해 설문조사 외에 인공지능 전문가를 대상으로 FGI(집단지음면접)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제조업 분야에서 AI기반 시스템의 스마트팩토리가 더욱 고도화되고 이에 따른 '클라우드 기술'과 'AI플랫폼'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광주인자위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광주인력개발원, 호남직업전문학교, 한국폴리텍대학과 함께 올해 정기과정으로 6개 인공지능 훈련과정을 개설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수시 과정을 통해 기업에 필요한 실무형 맞춤형 훈련과정을 개발할 계획이다.

송대용 기자 sdw0918@gwangnam.co.kr

ECONOMY

2025년 3월 10일 월요일



한전-서울과학기술대 에너지 신기술 융합학과 개설

한국전력은 최근 서울과학기술대학교와 협력해 '에너지 신기술 융합학과' 계약 학교 과정을 신설하고, 제1기 신입생 입학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학교 개설은 한전이 지난해 9월 발표한 '고졸 인재 종합육성 대책'의 일환으로, 고졸 직원들에게 맞춤형 후진학교육을 제공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학력 중심 사회의 한계를 극복하는 '능력 중심 청년 자립 선순환 모델'을 실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에너지 신기술 융합학과'는 4년제 정규 학사과정으로, 졸업 시 공학사 학위가 수여된다. 재직자들이 일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주중(월~목)은 온라인 교육을 일부 운영하고, 주말(금~토)에는 대면교육을 집중적으로 시행하도록 설계됐다. 향후 전력그룹사인 한국서부발전, 한국동서발전도 함께 참여해 대한민국 에너지산업을 이끌어갈 인재 양성에 힘을 보탬 예정이다.

이날 입학식에는 제1기 신입생 34명을 비롯해 김동철 한전 사장, 김원준 서울과학기술대 총장, 학교 교수진 및 대학 관계자들이 참석해 신입생을 환영하고, 고졸 인재의 후진학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지속적인 협력을 다짐했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이 과정은 기업과 대학이 함께 만들어가는 능력과 성과 중심의 청년 자립 선순환 모델"이라며 "조기 취업을 통해 경제적 자립을 앞당기고, 부모세대의 교육비 및 노후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사회 조기 진출, 결혼 및 출산율 증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승훈 기자 photo25@gwangnam.co.kr

GICON, 프로젝트 직원 공채 11~17일 5개 분야 5명 선발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GICON)은 2025년 1차 계약직(프로젝트) 직원을 공개 채용한다고 9일 밝혔다.

접수 기간은 오는 11일부터 17일까지이며, 지원서는 이메일 접수가 원칙이나 사전 문의 후 우편 접수도 가능하다.

이번 채용은 2025년 지역디지털품질관리역량강화(프로젝트5급 1명), 광주음악산업진흥센터 운영사업(프로젝트6급 1명), 2025 지역특화콘텐츠개발지원사업(프로젝트6급 1명), 소프트웨어(SW) 미래채용사업(프로젝트6급 1명), 2025년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프로젝트6급 1명) 등 총 5개 분야, 5명을 선발한다.

2025년 지역디지털품질관리역량강화(프로젝트5급 1명) 분야에서는 SW품질 컨설팅을 담당할 인원을 모집하며, ICT 관련 학과 졸업자, SW개발 경력자, SW 품질 분야 KOLAS 기술책임자를 우대한다.

자세한 공고 내용 및 접수 방법은 GICON 홈페이지(gicon.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경주 광주정보문화진흥원장은 "기회 도시 광주 실현을 위해 지역 콘텐츠·ICT 산업을 선도할 인재를 채용하고자 한다"며 "이번 채용을 통해 전문성을 갖춘 인재들이 광주에서 성장하며 지역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 바란다"고 말했다.

송대용 기자 sdw0918@gwangnam.co.kr

전남·제주 농기계은행 선도농협협의회 정기총회 농기계은행사업 활성화 방안 등 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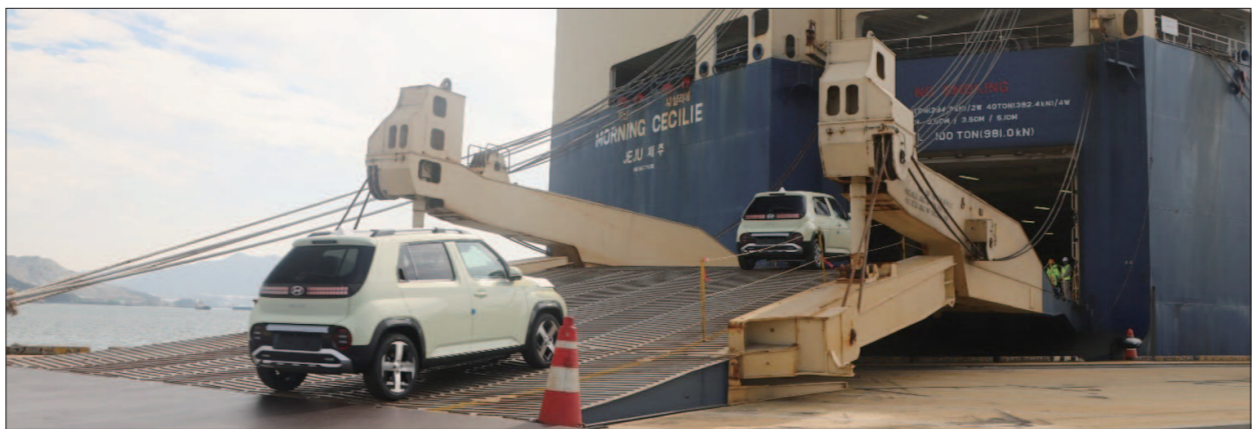
농협 전남분부는 최근 본부 4층 회의실에서 협의회 소속 조합장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전남·제주 농기계은행 선도농협협의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2024년 사업결산 보고, 2025년 사업계획 등의 안건을 의결했다. 또한 농작업 대형 확대를 위한 농기계은행사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해 기준 전남·제주지역 농기계은행사업은 농작업대면적 56만9000ha(전국의 40%), 방제작업면적 13만8000ha(전국의 35%)를 추진하는 등 농협의

농기계은행사업을 선도하고 있다. 박현규 협의회장(영암 군서농협 조합장)은 "농기계은행사업은 이제 일관농작업 대행을 넘어, 농협이 농기계를 구입하고, 직접 농작업을 대행하는 직영사업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광일 농협 전남본부장은 "농협의 농기계은행사업은 농촌 고령화 위기 극복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농기계은행 선도농협을 중심으로 직영 및 방제작업 대면 면적 확대 등 영농지원을 강화해 농업인 실의증대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이승훈 기자 photo25@gwangnam.co.kr



광주글로벌모터스가 지난해 10월 캐스퍼 전기차 유럽 수출에 이어 일본 수출차 양산에 들어갔다.

GGM, 파업에도 일본 수출차 양산 '순항'

월 8700대 생산목표 달성...공채 경쟁률 26.1대 1 호응

광주글로벌모터스(GGM)가 노동조합의 잇단 파업에도 불구하고 캐스퍼 일본 수출차 양산을 시작하는 등 생산 계획 차질없이 순항하고 있다. 또한 국내외의 주문 쇄도 및 결연 등에 따른 인력 충원을 위해 사원 공개채용을 진행, 청년 구직난에 단비가 되고 있다.

9일 GGM에 따르면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광주글로벌모터스지회는 지난 1월 10일 광주시청 앞에서 파업을 선언한 이후 같은 달 세 차례, 2월과 3월 각각 차례씩 모두 여섯 차례 파업을 벌였다. 하지만 파업 때마다 생산 현장에 일 반직 사원들이 투입돼 공정은 차질 없이 진행됐다. GGM은 1월과 2월 8700대의 생산 목표를 달성했으며, 3월도

계획대로 생산되고 있다. 또 지난해 유럽 수출차 양산에 이어 이달부터 일본 수출차 양산에 들어갔다. 이와 함께 GGM은 지난달 올해 1차 사원 공채를 실시, 지난 5일 원서접수 마감 결과 33명 모집에 총 867명이 접수해 평균 경쟁률 26.1대 1을 기록했다.

이번 공채에도 지역 인재들이 많이 몰린 것은 경기 침체로 인한 취업 절벽과 광주·전남에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 현상 때문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미국, 유럽, 중국 현지의 자동차 공장 견학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글로벌 자동차 전문가들이 제2기 경쟁진에 포진한 데다 GGM이 대한민국 제1호 상생형 일자리 기업이자 사회공헌 성격의 기업으로서

위치를 확고하게 다져 구직자들의 기대가 더욱 높아졌다는 평가다.

GGM 관계자는 "노조의 수 차례 파업에도 불구하고 생산라인이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는 것은 대부분의 직원들이 입사 때 서명한 노사상생발전협정서를 준수하고 일부 직원들만이 파업에 참여한 결과"라며 "앞으로 생산 현장 직원들과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소통하고 현장의 애로 및 요구 사항 등을 적극 수렴해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GGM은 수출차 양산이 본격화됨에 따라 품질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자동차 선진국인 일본 자동차 공장 견학을 실시하고 있다. 1차로 26명의 사원이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2박 3일 동안 현지에서 품질 향상 및 관리 기법 등을 벤치마킹했다. 정현아 기자 aura@



한국전력은 최근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에 위치한 미국 전력중앙연구소(EPRI)와 '지중케이블 고장점탐지 기술'인 SFL(Smart Fault Locator) 판매계약을 체결했다.

한전, 미국 전력시장 진출 '청신호'

EPRI에 '지중케이블 고장점탐지 기술' 판매

한국전력은 최근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에 위치한 미국 전력중앙연구소(EPRI)와 '지중케이블 고장점탐지 기술'인 SFL(Smart Fault Locator) 판매계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계약은 한전이 개발한 기술을 EPRI에 판매하는 첫 사례로, 미국내 전력 시장에 진출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전망이다.

SFL은 지하에 매설된 전력케이블의 고장 위치를 정밀하게 탐지할 수 있는 기술로, 신속한 고장복구와 안정적인 전력 공급뿐 아니라 전력케이블 노후화에 대응할 수 있는 필수 기술이다.

한전의 SFL은 측정자 속련도와 관계없이 운용할 수 있고, 고장점 오차율을 줄였다. 이는 점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아 EPRI의 올해의 기술로 선정돼 최고 기술상인 TTA를 수상했다.

TTA(Technology Transfer Awards)는 전력사 CEO로 구성된 EPRI 기술위원회가 선정·시상한다.

또한 한전은 미국 콘 에디슨 전력사(뉴욕주 에너지기업), 뉴욕전력청과 SFL 기술을 북미 실계통에 실증 및 사업화에 협력하기로 합의함으로써 향후 북미에 한전 보유 기술을 수출하기 위한 초석을 다졌다.

이승훈 기자 photo25@gwangnam.co.kr

올해 6044억 신규 투자...주거안정 '총력'

LH 광주전남본부, 순천도시첨단·선운2 개발사업 등 추진

LH광주전남지역본부가 올해 6044억원을 신규 투자해 지역 주거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나선다.

9일 LH광주전남본부에 따르면 지역 내 총 16개 지구 개발사업과 주택사업 총 23개 블록, 공공주택택 9종 16000호 운영관리를 수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순천도시첨단·광주선운2 등 개발사업에 955억원, 해남해리·목포상락 등 공공주택 건설에 1180억원, 매입 임대주택 확보 및 노후주택 유지보수 등 주거복지 사업에 3908억원이 투입된다.

또 나주, 고흥 신규 국가산업단지 조성 등 지역 성장 거점사업을 차질없이 추진, 관련 산업 활성화 및 지역경제 발전에 힘쓴다.

지역 주택공급 안정을 위해 연내 총 3330호의 공공주택사업 승인을 완료하고,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매입대주택 1124가구, 전세사기 피해주택 250가구, 전세임대 1783가구를 확보해 청년, 신혼부부, 전세 사기 피해자 등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노력한다.

송대용 기자 sdw0918@gwangnam.co.kr

농협 전남본부, 한돈 시식·판촉 행사

농협 전남본부는 최근 열린 곡성축협 직거래장에서 '한돈 시식행사 및 판촉 행사, 쌀맛결리 시음회'를 실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한돈의 우수한 품질과 맛을 널리 알리고,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에서 주최하고 농협 전남본부와 곡성축협에서 주관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삼겹살, 목살 등 정육 3개 대비 33%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했다. 특히 한돈 시식행사에는 직거래장터를 방문한 많은 소비자들이 다양한 한돈 요

리를 시식하며 한돈의 뛰어난 맛을 직접 경험했다. 이와 더불어 한돈 구매고객에게 곡성쌀 500g을 증정하고, 쌀로 만든 막걸리 시음회를 진행했다.

이광일 본부장은 "건강하고 맛있는 우리 한돈 소비가 확대돼 양돈 농가의 소득증대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우리 한돈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소비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승훈 기자 photo25@

로또 20 21 22 25 28 29

로또 1등 36명...당첨금 각 8억2000만원

제1162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20, 21, 22, 25, 28, 29'가 1등 당첨번호로 뽑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6'이다.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36명으로 8억2393만원씩 받는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

치한 2등은 78명으로 각 6338만원씩을,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4752명으로 104만원씩을 받는다.

당첨번호 4개를 맞힌 4등(고정 당첨금 5만원)은 16만953명, 당첨번호 3개가 일치한 5등(고정 당첨금 5000원)은 253만8565명이다.

연합뉴스